

미술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마음가짐

신간 '미술관 활용법' ... 전시장 가기 부담스러울 때 미술관 100% 활용법 책에 답아

"어떤 사람들은 미술을 후천적으로 습득한 취향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치즈처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을 즐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약간의 맥락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전부다." (p.43)

하지만 그 마음가짐, 미술관으로 향하기 쉽지않다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관은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지만 미술관에 가기까지는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

영화관과 미술관의 차이도 있다. 영화관에서는 마음껏 울고 웃고 할 수 있지만 미술관에서는 감정표현에 앞서 어떻게 작품을 다 보려고 애쓰게 된다. 영화관 가듯 미술관에 갈 순 없을까? 영화처럼 미술도 쉽게 즐길 수는 없는 걸까?

이 책 '미술관 100% 활용법'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이트 있게 편견을 걷어 도전장을 내민다. 작품으로 넘쳐나는 미술관에서 "미술관을 체크리스트가 아닌 일종의

메뉴'라고 여기라며 조언한다.

또 "미술은 벽에 걸려 있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과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며 당시의 사고를 전환시킬 관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관람객을 미술관의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구경이 아닌 '발견'과 '경험'으로 이끈다.

"미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저 미술관 안에 있다고 해서 위대한 미술작품 앞에서 서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감상한다고 해서 당신의 미술 경험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미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미술관 활용법을 제대로 알려준다.

이 책이 전하는 관람객 행동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1. 명작이든 아니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작품이 당신의 주목을 끌 수 있는가에 있다.
2. 미술관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때때로 좋은 신호다.

3. 미술작품 앞에 서 있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늘 같은 의미를 따지는 않는다.
4. 미술관 다리(어슬렁어슬렁 걸은 후 생기는 다리 통증에 걸리는 걸 피하고 싶다면 '휴식을 취하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라'와 같은 엄마의 잔소리를 기억하라.
5. 캔버스에 포착된 풍경은 예술가가 생존하던 시대의 보편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6. 어떤 그림을 보고 첫눈에 혐오하게 되었다 해도 괜찮다. 하지만 계속 바라 보라.
7. 예술가가 작품의 제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관객이 작품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르지 않다.

'미술관 활용법, 일단 최우선은 '행동하라'가 원칙이다. 요한 이데마 지음, 손희경 옮김, 128쪽, 아트북스

/뉴스



'미술관 활용법, 일단 최우선은 행동하라'가 원칙이다. 요한 이데마 지음, 손희경 옮김, 128쪽, 아트북스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 강좌 수강하고 취업노리기' 11월 실무인력양성 수강생 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공연 예술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예술인과 현장에서 일하면서 전문 지식에 목말라하는 현장예술인을 위한 공연예술 실무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연예술 강좌 수강하고 취업노리기'를 11월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전라북도에서 펼쳐지는 많은 공연과 축제 등에서 공연 조명과 영상(미디어 파사드 등) 실무 인력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을 극복하고, 지역의 젊은 예술인이 공연예술 현장에서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의 습득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프로그램은 총 20강으로, 공연조명분야 총11강과 영상분야 9강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각 분야별로 역량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과 실기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강좌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 063) 230-7471. /정해은 기자



예술인들의 심연의 혼을 담아 전라예술제 축제 열리다

한국예총전북연합회 내일부터 16일까지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북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의 꿈 미래로, 전북의 빛 세계로'를 주제로 종합예술축제를 벌인다.

올해로 55회를 맞이하는 전라예술제에는 건축가협회를 비롯해 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작가·연극·연예·영화·음악 등 총10개 협회, 1만여 명의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회원들이 동참한다.

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 덕진공원에서.

영화인협회는 암울한 시대 하에서도 용기 있게 온 몸을 던져 소신껏 살아간 사람들을 그린 영화 밀정, 암살 덕해옹주 등 총3편을 오후 2시 전주CGV공사점에서 14~16일 각각 상영한다.

이와 함께 전북출신 명감독·배우를 초청해 관객과의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다.

14~16일에는 문인협회가 문학의 힘이 생활의 활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특강을 마련하고 소재호 석정문화관장과 김용택 시인을 초대한다.

건축가협회는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새로운 건축문화의 패러다임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를, 미술협회는 예술가의 삶과 휴먼스토리텔링을 조형세계로 표현한 '풍요로운 예술의 전주, 전북의 빛' 전시를, 사진작가협회는 '렌즈로 본 전



전북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의 꿈 미래로, 전북의 빛 세계로'를 주제로 종합예술축제를 벌인다.

북의 산하와 삶의 현장을 각기 펼쳐 보인다.

15일에는 연예예술인협회가 오후 2시 트로트 가요쇼를, 연극협회는 오후 7시 모노드라마 연쟁이 유씨를 이창선 대공스타일과 함께 선보인다.

이어 16일에는 무용협회가 오후 2시 예술로 치유하다 무대를, 국악협회는 오후 7시 우리소리 한마당을 갖는다.

축제의 서막은 음악협회가 14일 오후7시 빅밴드와 함께 하는 온고를 하모니 공연으로 연다.

성악가 김남두를 비롯해 초대가수 강진, 섹스폰 연주가 김원용 등이 빅밴드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선거현 회장은 "55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술문화의 수준과 깊이를 측정하는 행사로 순수문화예술행사의 자부심이고 중심이며 희망이다"며 "이번 기회에 깊고 그윽한 예술의 향을 피워 함께 공유하는 예술, 신명나는 행복한 예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문의 255-2611. /정해은 기자

그린데이, 4년 만의 새 앨범 '레볼루션 라디오' 발매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정통 미국 펑크 록 밴드 '그린 데이(Green Day)'가 4년 만에 워너뮤직을 통해 새 앨범 '레볼루션 라디오'를 발매했다.

밴드가 프로듀스를 맡은 이번 앨범은 2004년 발표한 이 팀의 명반 '아메리칸 아이디엇'부터 함께해온 크리스 두건이 엔지니어를 담당했다.

그린데이의 정갈한 사운드와 한결같은 반항적 태도를 담고 있는 이 앨범은 외모만큼이나 여전히 젊은 빌리 조 암스트롱의 힘찬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거침 없이 질주하며 가슴을 시원하게 자극하는 기타 리프와 리드, 쉽고 흥겨운 멜로디 중심의 팝 펑크 사운드로 가득하다.

지난 8월 공개된 첫 싱글 '뱅 뱅(Bang Bang)'은 빌리 조가 새 앨범을 위해 가장 먼저 작곡했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자기 도취적인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지닌 사이코패스 킬러의 입장이 돼 노래한다.

거칠고 맹렬한 기타와 세차게 내달리는 베이스 폭발적인 드럼에 실리는 격렬한 보컬은 밴드 초창기 펑크 록 사운드를 연상시킨다.

빌보드 메인스트림 록 차트 17위로 데뷔한 이 곡은 3주만에 차트 정상에 올랐고 얼터나티브 노래 차트 4위와 영국 록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뉴스

원광대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미술대학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366 :365+1(또 다른 시작)'을 주제로 디자인의 시간상에 관한 다양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공간환경, 제품, 가구 영역의 작품 61점이 전시된다.

다양한 공모전 수상과 활동으로 국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광대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는 유럽의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와 교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 허베이 지질대학교와 한중합작학과를 개설한데 이어 유럽 명문 디자인 대학교도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주 4학년 지도교수는 "통합과 통합을 목표로 디지털특성화 국제화교육 등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예비 디자인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기발한 발상과정과 재현 및 구현 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화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한 페브리케이션 과정이 전시에 담겨 있다"며, "미래의 디자인 주역이 될 예비 디자이너들의 졸업전시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시회를 준비한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디자인에서의 시간성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전시 주제를 설정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366 :365+1(또 다른 시작)은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숫자인 1년의 일수에 하루를 더한 것으로 불완전하고 미결여로 진행되는 우리의 자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제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0월 13일>

▷쥐띠
46년생: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니 모든것이 순조롭다.
60년생: 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되니 혼자 고민하지 마라.
72년생: 화합에 신경 쓰면 좋은일이 생기고 어려움도 해결.
84년생: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것을 구하지 마라.

▷소띠
49년생: 겸손함과 더불어 내일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그동안 했던 언행에 대해 구실이 따르는 운.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아직은 기운이 미약한 상황이니 뒤로 물러서라.

▷호랑이띠
50년생: 협동해야 가능하니 먼저 손을 내밀어라.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위험으로 인해 신경쓸 일이 생긴다.

▷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실이 따르나 나중에는 편안해진다.
63년생: 베푸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공손함을 잃지 마라.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다.
64년생: 문서로 인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 필수.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일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

▷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억울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마라.
66년생: 울리오는 회기를 가리려하라.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급전유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니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

▷양띠
55년생: 문서에 걸림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작은 계획은 관태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기나 한편으로는 성가시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55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92년생: 소화가 게똥이 막히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라.

▷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구실도 함께 따르라.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개띠
43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55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다.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할라.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행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